

대동법 완성한 청백리 재상에 ‘민생’을 묻다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이정철 지음

‘민생’만큼 자주 거론되는 말도 없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번지

한 구조만 있고 실현이 없다. 민생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역사에서 민생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조선 16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의 경제가(經世家)인 이이(1536~1584), 이원익(1547~1634), 조익(1579~1655), 김육(1580~1658)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들은 조선 중종부터 효종에 이르는 시대의 인물들로 민생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정철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이 쓴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는 이들 4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은 민생의 원칙을 안민(安民)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그러나 백성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인조반정, 이괄의 난 같은 크고 작은 변고가 끊이지 않았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역사상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른바 조선 최고의 조세 시스템으로 일컫는 대동법이 그것이다. 대동법은 조선 중기 이후 공물을 미곡으로 통일해 바치는 부세제도를 말한다. 관료가 지정한 물품 대신 쌀이나 무명으로 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기존 세금의 5분의 1정도만 부담한 셈이다.

이 같은 개혁은 당장 반대파의 파상적 공세에

부딪혔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도 통용됐을 듯싶다. 그럼에도 이들은 신념으로 무장하고, 이론으로 설득하고, 실천으로 구체화했다. 민생은 생애를 걸고 실행해야 하는 최고의 통치 이념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생애를 걸 수 있었던 바탕은 청민에서 나왔다. 그들은 모두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면서도 변변한 집 한 칸 없이 살았다.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 잃어버릴 것도 없었다. 민생을 화두로 삼고 있는 지금의 정치권과는 너무도 먼 얘기다. 당장에 청문화 남기가 쉽지 않은 인사들이 민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일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최고의 사회적 공공선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듯이 조선시대에는 그것을 ‘지치(至治)’라고 불렀다. 성리학의 이상이 지극하게

구현된 정치라는 말이다.”

저자의 인식은 민생은 지치이자, 민주주의며, 사회적 공공선이라는 동일선에 닿아 있다. ‘국민의 생계’는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공공선이 지극히 구현된 상태라는 것이다. 민생이라는 말에 깃든 철학적 깊이와 정치의 구현이 그리 간단치 않다. 작금의 정치권에서 ‘민생’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책은 ‘조선의 개혁’이라는 주제하에 네 사람의 일대기가 이어진다. 작은 평전이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는 느낌이다. 각각의 삶과 이념, 당시의 정치 상황과 사건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그 이면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지향은 민생해결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일차적으로 민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 이이의 목소리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언제나 민생을 염려했던 역사 속 재상들의 삶과 가르침에 한번쯤 귀를 기울여 볼 일이다.

〈역사비평사·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관감당(觀感堂)은 인조8년(1630)에 인조가 이원익의 집에 다녀온 승지의 말을 듣고 내려온 집이다.

‘미소·분노·눈물·즐거움’이 있는 집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

구본준 지음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내부 계단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아마도 진정한 사죄가 없는 일본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건축에도 감정이 깃들여 있다. 인간과 같은 회로연락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건축이 내재하고 있는 역사는 회로연락이 담긴 사람의 이야기로 전이된다.



한겨레 문화부 구본준 기자가 쓴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은 건축을 인격체며 주제로 삼았다.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건축이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의미다.

“처음에는 디자인이 멋지고 근사한 건축이 좋았다. 집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건축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은 인생 그 자체였다.” 〈서해문집·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빠 육아’ 스스로, 저절로, 다함께

‘아빠를 키우는 아이’

박찬희 지음

남자가 육아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빠를 키우는 아이’의 저자 박찬희씨는 10년 넘게 해운 박물관 큐레이터를 접고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그는 “육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마흔이 넘은 남자의 육아는 한편의 좌충우돌 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애 키우는 아빠의 고충은 자연스레 세상을 섬세하고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한다. 그렇다고 책에 현란한 육아



기술이나 팁이 있는 건 아니다. 대신 ‘스스로, 저절로, 다함께’라는 자세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냥 아저씨였을 텐데 어디에서 이런 관심을 받아보겠나. 동네 엄마들의 세계도 조금 알게 되었고 소수자의 삶이 어떤지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저자는 육아는 곧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성찰에 이른다. 아이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사람이 부모라는 것이다. 〈소나무·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솔직한 욕망… 고전문학의 진면목

‘아주 사적인 독서’

이현우 지음



읽어내는 게 흥미롭다. ‘아주 사적인 독서’에서는 ‘욕망’을 주제로 다룬 7편의 고전 문학을 텍스트로 강의의 진행한다. 그가 집어낸 소설은 ‘마담 보바리’, ‘주홍글자’, ‘채털리 부인의 연인’, ‘렐리’, ‘돈키호테’, ‘파우스트’다. 마지막에 다룬 푸슈킨의 ‘석사 손님’이 다소 낮은 작품이지만, 주인공이 돈 조반니, 돈 주앙 등으로 불린 스페인의 바람둥이 ‘돈 후안’인 점을 감안하면 남성의 ‘욕망’을 읽어내는 데 적합한 인물이다.

7권의 책 중 관심 있는 소설을 먼저 읽은 것도 좋지만 저자는 남자인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몰아서 순서대로 읽기를 권했으니 참고할 것. 〈웅진지식하우스·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김선미 지음



있다. 책의 저자 김선미는 월간 ‘MOUNTAIN’기자로 활동하다 어느 날 문득 ‘월든’을 읽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가족과 함께 그들만의 ‘월든’을 찾아나섰고 작은 시골에서 10여년을 살았다. 책에는 소로우의 삶과 교감을 하며 저자와 그의 가족이 지낸 10년 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자는 단순히 ‘월든’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는 곳이 어디든 그곳을 ‘월든’으로 만들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디든 가고자 마음먹었다면 이미 그곳에 도달한 것이라고 한다. 설령 그곳에 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이다.” 〈위즈덤하우스·1만2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포츠 명장들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모든 것

‘건곤일척 모든 것을 걸어라’

하정민 지음



실화를 통해 기업과 조직 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담았다. “1등을 무작정 모방하지 마라”, “도망가지 말고 극복해야 한다. 포기하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리더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가 찾아낸

거장들의 리더십이다.

책 속에 소개된 스포츠 거장 18인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독창적인 전술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치밀한 전략을 짜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뛰어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경영인이기도 하다.

〈레인메이커·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리퀴드 리더십=세계를 뛰어넘는 리더의 조건 ‘리퀴드 리더십’. 닷컴 백만장자인 저자 브래드 스톨로제가 경영자에게 던지는 조언이다. 저자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변의 리더십 법칙 7가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을 우선하는 태도에서부터 영구적인 유산을 남기는 방법까지 책에는 다양한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의무를 고취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 망라돼 있다. 〈유아이북스·1만5500원〉

▲마법의 나날들=‘제2의 루이제 린저’로 평가받는 독일의 대표적 어린이·청소년문학 작가 미리암 프레스러의 장편동화다. 딱정벌레 수집을 좋아하는 사무엘은 섬세하고 겁 많은 소년이다. 갑작스러운 이사와 엄마의 자아 찾기 새롭고 낯선 생활과 맞닥뜨리게 된 사무엘이 두려움을 이기고 마법 같은 성장을 하는 이야기를 섬세한 심리 묘사와 서정적인 문체로 담아 냈다. 〈한겨레아이들·9000원〉

▲포이즌우드 바이블=미국에서는 이미 고등학교·대학교 문학 과정 필독서로 널리 알려진 바버라 김슬버의 ‘포이즌우드 바이블’이 드디어 한국에 출간됐다. 1959년 선교를 위해 벨기에령 콩고로 가족을 데려간 독실한 침례교 목사 네이션 프라이스의 아내와 네 딸의 서술을 통해 20세기 콩고의 실제 역사인 정치적 대변동 시대를 시작으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지는 한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한다. 〈RHK·1만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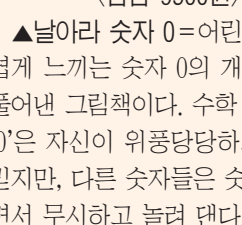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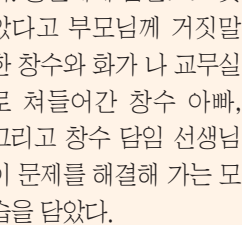
▲GUN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총기 53선=우리나라에서 총은 가깝고도 먼 대상이다. 한 해에 수십만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며 총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러 종류의 총이 소개됐다. 책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과 이후에 벌어진 여러 전쟁에서 인상적으로 활약한 총,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많이 선호하는 총 53종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 〈플래닛미디어·2만5000원〉

▲극지 해빙의 과학=극지 해빙이 발달하는 원리와 과정을 사진을 통해 상세하게 보여준다. 최경식 한국해양대 교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극지에서 직접 촬영한 해빙의 모습이 실감나게 전해진다. 온통 얼음 세상인 책 속의 극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극지에 와 있는 듯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지오북·1만8000원〉

▲북간도는=1870년대부터 1945년 8·15광복까지의 사이에 이세 일가 이한복, 이장순, 이창윤, 이정수 4대가 겪는 수난과 역사적 소용돌이와 외세 앞에서 민족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모습이 담긴 대하역사소설이다. 소설가 안수길이가 1959년부터 사상계에 발표하기 시작한 장편소설 ‘북간도’는 한국 최초의 5부작 대하소설로, 광복 후 한국문단이 거둔 큰 수확으로 평가된다. 〈글누림·1~2권 각 1만2000원 3권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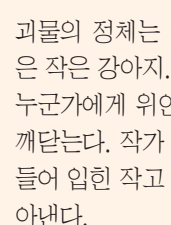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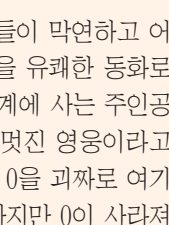


▲외아들 구출 소동=집에서는 왕자, 학교에서는 싸움대장인 외아들 창수. 어느날 친구들과 놀이를 하던 중 한 대 얻어맞고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형들에게 집단으로 맞았다고 부모님께 거짓말한 창수와 화가 나 교무실로 쳐들어가 창수 아빠, 그리고 창수 담임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담았다. 〈북폴·9500원〉



▲날아라 숫자 0=어린이들이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는 숫자 0의 개념을 유쾌한 동화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수학 세계에 사는 주인공 ‘0’은 자신이 위풍당당하고 멋진 영웅이라고 믿지만, 다른 숫자들은 숫자 0을 괴짜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놀려 대다. 하지만 0이 사라져 버리자 수학 세계는 대 혼란에 빠진다. 〈북나무·1만1000원〉

▲손 없는 색시=새어머니에 의해 끔찍한 상황에 빠진 처녀. 두 손이 잘리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이 헤매다가 도령을 만나 혼인을 하고 아기도 가진다. 하지만 또 다시 새어머니의 모



략에 쫓겨난 처녀는 아이와 함께 갈 곳을 찾아 헤맨다. 수많은 우리 옛이야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손 없는 색시’가 참된 사랑과 모성의 힘을 보여주는 그림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림출판사·1만2000원〉

▲숲 속 재봉사와 털뭉치 괴물=동물들에게 멋진 옷을 만들어 주는 숲속 재봉사에게 엉망진창 털뭉치 괴물이 찾아온다.

괴물의 정체는 알고 보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작은 강아지. 터무니 괴물은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작가 최항량이 직접 뜨개질해서 만들어 입힌 작고 귀여운 인형 옷들이 감탄을 자아낸다. 〈창비·1만1000원〉

▲블랙 독=어느 날 호프 아저씨네 집에 나타난 커다란 검둥개. 이 개는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욱 더 커진다. 사람 키를 훌쩍 넘어 집채만 해져 버린 검둥개. ‘블랙 독’은 검둥개를 주인공으로 두려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북스토리아이·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

